

이재명,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오염수 위반 의결 촉구

당사국 88개국에 오염수 런던협약 위반 의결 촉구 “국민·세계인과 오염수 투기 반드시 중단시킬 것”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투기 의정서 위반 결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개국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이라는 제목의 친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친서는 오염수 방류를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월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도록 당사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싸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연일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장시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며 “핵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비상사태”라며 “거듭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에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라”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소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식선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 정면 위배된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

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친서에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원전 폐쇄로 인한 오염된 장비를 처리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고 오로지 재정적 이익을 위해 해양 투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발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태평양 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우편발송과 함께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



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총회 당일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회 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서 한 명 한 명이 각국 외교특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적 연대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용일기자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 고수온 피해 양식장 피해상황 점검



최근 여수시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가운데,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피해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8월 30일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평) 위원 및 시의회·시 정부 관계자 등 총 14명이 돌산 피

해 양식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시 정부 관계자로부터 피해접수 상황과 원인규명 합동조사 계획 등을 청취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29일 기준 79개 어가에서 어류 집단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위원들은 피해 수습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고수온에 대

8월 30일 돌산 양식장 점검

비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날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도진입도로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현장 또한 방문했다. 위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경도진입도로 및 해저터널이 여수 부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영평 위원장은 “피해 어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대형 도로사업장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제3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와, 제9대 담양군의회 제2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9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건(의원발의 6, 집행부 14),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중점 심의할 계획이며,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조금 지원사업 52개 사업장(현지확인 16, 서

류심사 36)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과 함께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특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현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